

Daniel: 12: Sermon Notes

Title: “Into the fiery furnace”

Scripture: Daniel 3:19-25

Date preached: August 25th 2024

Scripture: Daniel 3:19-25

19 Then Nebuchadnezzar was full of fury, and the expression on his face changed towar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e spoke and commanded that they heat the furnace seven times more than it was usually heated. 20 And he commanded certain mighty men of valor who *were* in his army to bi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cast them*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21 Then these men were bound in their coats, their trousers, their turbans, and their *other* garments, and were cast into the midst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22 Therefore, because the king’s command was urgent, and the furnace exceedingly hot, the flame of the fire killed those men who took up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23 And these three m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down bound into the midst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24 Then King Nebuchadnezzar was astonished; and he rose in haste *and* spoke, saying to his counselors, “Did we not cast three men bound into the midst of the fire?”

They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True, O king.”

25 “Look!” he answered, “I see four men loose,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19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잔뜩 화가 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대하는 그의 얼굴 표정도 달라졌다. 그는 평소 때보다 용광로의 불을 7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20 또 간직한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단단히 묶어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정당한 그대로 묶어서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다.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의 불길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었다. 23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꼼꼼 묶인 채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다.

24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25 “그런데 어쩌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 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very well known portion of scripture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some of the things we looked at last week.

We found ourselves in king Nebuchadnezzar's court. News had reached him via the Chaldeans that not everyone had followed his decree to bow before the golden image.

It had been the king's order that when all those gathered before the image heard the orchestra strike up they were to fall in worship before the statue. Failure to do so would result in being thrown into the fiery furnace. Ancient tyrannical rulers like Nebuchadnezzar were not accustomed to having their orders ignored. In fact, they maintained order and control by being ruthless. So his reaction to this news is entirely predictable. He shrugs his shoulders and says, “Oh well, never mind!” No, this is not what he does. He very predictably becomes furious and filled with rage. He demands that the Jews who have dared to disobey him be brought before him.

Our three heroe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re brought in. We should remember that the

□□□□□□ □□□□. 그들이 불길 속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서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신다면 그 또한 왕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이들이 왕에게 하는 놀라운 도전적인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바빌론 신들을 경배하거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왕이 이들의 강력한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9 Then Nebuchadnezzar was full of fury, and the expression on his face changed towar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e spoke and commanded that they heat the furnace seven times more than it was usually heated.

I'm sure as parents we have all witnessed children throwing a temper tantrum. Hopefully not our own exceptionally well brought up children. A temper tantrum is an unplanned outburst of anger and frustration that children exhibit when they are not getting what they want. Typically crying, stamping of the feet and clenched fists ensue.

King Nebuchadnezzar's excessive rage here is akin to such an outburst. He is not acting sensibly or rationally. Instead, he is giving into his temperamental and unpredictable nature. He is clearly unaccustomed to not getting his own way. We are told his expression changed towards our three young heroes. Up to this point he had been rather fatherly. He wanted them to fall in line so that their lives would be spared. It seems he valued them for the service they provided for his empire, and did not want to have to kill them. Now though his attitude has changed. His demeanour is no longer fatherly. Their words of open defiance have stoked his wrath. He now has no desire to spare them, now he wants to destroy them in as brutal a way as possible.

We read that he ordered that the furnace be heated seven times more than usual. This is of course an impossibility.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 proverbial expression an example of hyperbole representing the far less dramatic concept of "much more." So we might read the king's words to mean he demanded that the fire be stoked so that it was as, "hot as possible."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the furnace itself.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the remains of some ancient furnaces near the remains of the city of Babylon. You can see one in the pictures on the screen. It's quite a large structure easily able to accommodate four people walking around.

They typically possessed a large opening at the top through which fuel and vessels full of ore could be placed into the fire. This opening would also serve as an outlet for the smoke. At the bottom was a door or opening through which the smelted metal could be taken out. There would also be openings in the wall which enabled the smelters to check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These openings would also serve as places where portable bellows could be inserted to increase the heat of the furnace.

So more fuel was added and the furnace made as hot as possible. Let us continue.

19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진즉 화가 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대하는 그의 얼굴 표정도 달랐다. 그는 평소 때보다 용광로의 불을 7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부모로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떼 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훌륭하게 잘 지란 아이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떼를 쓰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버럭 분노와 좌절감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보통 발을 구르고 주먹을 불끈 쥐 채 심하게 울어 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극심한 분노는 이러한 감정 폭발과 유사합니다. 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 젊은 영웅들을 대하는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아버지 같았습니다. 왕은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처럼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충실히 섬긴 그들을 소중한 여겼고,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반항의 말은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고, 가능한 한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왕은 용광로를 평소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표현은 "훨씬 더 much more"라는 개념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과장법의 한 예인 속담 표현입니다. 따라서 왕의 이 말은 불을 더 지펴서 "가능한 한 뜨겁게 hot as possible" 하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광로 자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빌론 도시 유적지 근처에서 고대 용광로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걸어들 수 있을 만큼 꽤 큰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쪽에 큰 입구가 있고 그것을 통해 땀감과 정제할 광석이 든 용기를 불 속에 넣습니다. 이 입구는 또한 연기 배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바닥에는 정제된 금속을 꺼낼 수 있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련공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벽에 개구부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부를 통해 휴대용 송풍기를 삽입하여 용광로의 열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땀감이 더해졌고 용광로는 최대한 뜨거워졌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0 And he commanded certain mighty men of valor who were in his army to bi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cast them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The bible does not furnish us with a description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Now it might be that they were all incredibly strong muscle-bound men. But, in all probability they were normal sized men. They had been taken into exile as teenagers and had spent the past few years in academic study and then working as civil servants. The point I am trying to make here is that we are not talking about super strong warriors. They were not men capable of breaking shackles and fighting off heavily armed m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not ninjas. Also consider the image I just showed you of the furnace. Once you were thrown into the opening at the top there was no way your could scramble back up and escape. So their binding was hardly necessary.

And yet the king acts as if they have to literally be wrestled to the furnace. He calls for his toughest and strongest warriors to come and tie up these three Jewish men. These men were the Babylonian equivalent of the US Navy Seals. They will be the ones to cast these three Jews into the fire. His ordinary guard will not suffice. Its demonstrates to us his irrational and all consuming rage. How often we fall into the trap of acting and saying foolish things when we are in the grip of anger. As we read in God's Word.

**Do not hasten in your spirit to be angry, For anger rests in the bosom of fools.
(Ecclesiastes 7:9)**

Or how about this take from James.

**19 So then, my beloved brethren, let every man be swift to hear, slow to speak, slow to wrath;
20 for the wrath of man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James 1:19-20)**

There is then great danger in acting in angry haste. Let us read on and see what happens next.

20 또 건장한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네그를 단단히 묶어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성경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근육질이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보통 체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 대 때 유배되어 지난 몇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고 정부 관리로 일했습니다. 제 요점은 그들이 엄청나게 강한 전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박을 끊고 무장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 메삭, 아벳네그는 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방금 보여드린 용광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꼭대기에 있는 입구에서 던져진 후에는 다시 기어 올라가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단히 묶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마치 그들을 용광로로 끌고 가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건장한 군인들을 불러서 이 세 유대인들을 단단히 묶으라고 합니다. 이 군인들은 미국 해군 특수부대의 바빌론 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 유대인을 볼 속에 던질 것입니다. 왕은 그의 평범한 경비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비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분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자주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 빠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길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분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아. 라 (전도서 7:9)

또한 야고보서에 기록하길

19 □ □□□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아라 (야고보서 1:19-20)

그러므로 분노에 휩싸여 서둘러 행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계속 읽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21 Then these men were bound in their coats, their trousers, their turbans, and their *other* garments, and were cast into the midst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Normally prisoners would be stripped naked before they were tossed into the flames. Here though we are told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bound in their court clothing. This was most likely the clothing they were wearing at their appearance before the king. Why is this seemingly insignificant detail recorded? Well it tells us that these men were dressed for a special occasion. They were wearing their finest clothes. They had not dressed down in a way that was dishonouring the king, or disrespecting the occasion. They were not rebellious men. It was simply that they could not go against what they knew to be right and worship an idol. That the king didn't take the time to strip them naked speaks to the great haste with which he acted. He wanted these men killed instantly. He did not even want to wait for them to be shamefully undressed.

The clothing that is described here was typical of the clothing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lite in Babylon at that time. Terms may vary, bu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likely wearing an undergarment, an overcoat, a turban on the head, sandals on their feet and perhaps some additional ceremonial clothing. As we shall see this clothing features later on in the narrative. Nothing of the clothing is singed or damaged in any way by the fire. Only the ropes used to bind the men are destroyed by the flames.

Clothed and tightly bou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re taken to the top of the furnace. Below them lies red hot heat and near instant death.

Let us read on.

21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정장한 그대로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어서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다

일반적으로 불길 속으로 던져 넣기 전에 죄수들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고가 옷을 입은 채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을 알현할 때 입는 궁정복일 가능성이 큼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세부 사항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차려입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으로 왕을 모욕하거나 행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 반하여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왕이 그들의 옷을 벗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은 그가 얼마나 서둘러 행동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왕은 그들을 즉시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차욕스럽게 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옷들은 당시 바빌론 정부 관리들과 엘리트들이 입었던 전형적인 옷차림입니다.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 메삭, 아벳-고는 속옷, 외투, 머리에 턴, 발에 샌들, 그리고 아마도 추가적인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옷은 불에 그을리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묶는 데 사용된 밧줄만이 타버렸습니다.

옷을 입은 채 단단히 묶인 사드락, 메삭, 아벳-고는 용광로 위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아래에서 뜨거운 열기와 즉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22 Therefore, because the king's command was urgent, and the furnace exceedingly hot, the flame of the fire killed those men who took up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23 And these three m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down bound into the midst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The king as we have just noted was in great haste to have these men killed. As the soldiers led them to the top of the furnace they were overcome by the intense heat. How hot might it have been? Well these furnaces were designed to smelt various metals. Two metals that were commonly used in Babylon were gold and bronze. The melting point of gold is 1063 degrees Celsius. Bronze melts at between 850-1000 degrees Celsius. So this furnace was nice and hot. I read an interesting report on the "Science alert" web page about the maximum heat the human body can endure.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at it's actually 35 degrees Celsius. Research has shown that even a healthy young person will die after enduring six hours of 35 degree Celsius warmth when coupled with 100 percent humidity. There is even some debate that the real critical temperature is actually lower than 35 degrees. So take care especially during these very hot summer days.

So it was hardly surprising that even these mighty warriors, hand picked for their strength and toughness succumbed to the heat.

Quite how the three Jewish men ended up falling into the furnace is not explained. Maybe they were dragged to the opening and as the soldiers were overcome by the heat they managed to push them forward and into the furnace. Or maybe as the guards fell they lost their balance and tumbled into the opening. However it happened the three men are now tumbling down into the very midst of the fire. What will happen next? Let's find out.

22 왕의 명령이 압하고 용광로의 불길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 23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끄꽁 묶인 채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다

왕은 이 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매우 서둘렀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을 용광로 꼭대기로 인도했을 때 강렬한 열기가 그 군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용광로는 다양한 금속을 정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두 가지 금속은 금과 청동이었습니다. 금의 녹는점은 섭씨 1063 도입니다. 청동은 섭씨 850-1000 도 사이에서 녹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광로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는 "과학 경보 Science alert" 웹 페이지에서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열이 단지 섭씨 35 도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이들도 습도 100%와 섭씨 35 도의 환경에서 6 시간이 지나면 사망합니다. 실제 일기 온도가 35 도 보다 낮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과 강인함으로 인해 선택된 이 강력한 전사들조차도 열에 사로잡힌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세 명의 유대인이 어떻게 용광로에 던져졌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입구로 끌려갔고 군인들이 불길에 타서 죽자 그들을 앞으로 밀어 용광로로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군인들이 떨어지면서 그들 또한 균형을 잃고 입구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던 이 세 유대인은 불길 한기운데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4 Then King Nebuchadnezzar was astonished; and he rose in haste *and* spoke, saying to his counselors, “Did we not cast three men bound into the midst of the fire?”

They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True, O king.”

25 “Look!” he answered, “I see four men loose,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We are not sure how the king could see into the furnace. It's possible that a raised platform had been constructed to allow him to watch the proceedings from a safe distance. Alternatively he may have been at the doorway at the bottom looking in, or peeping through one of the observation holes. Whatever the case he is able to see what is transpiring inside the furnace. Now perhaps the king wanted to watch because he had a morbid curiosity. He derived pleasure from watching people die horribly. Or maybe he wanted to see these men who had openly defied him get their comeuppance. Or maybe something else happening? Let me dangle an intriguing possibility your way.

We made a decision a number of years ago to adopt the New King James Bible translation. It is the Bible I read daily and also the one I use to preach and teach from. But for just a moment would you allow me to speak about the Septuagint. As you probably know it was a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 into Greek. It actually represents the first major effort at translating a significant religious text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It was completed about 100 years before Christ. This means that it was the bible translation widely read in Jesus' day. This become apparent when we compare the New Testament quotations of the Hebrew Bible. It soon becomes clear that the Septuagint was the bible they were quoting.

Now we acknowledg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ranslations, and that we have made a decision to go with the New King James. Sometimes things are added and sometimes things are subtracted from one translation to another. Let me read Daniel chapter 3 verses 24 and 25 as it appears in the Greek Septuagint (translated into English).

23 Then these three men, S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bound into the midst of the burning furnace, and walked in the midst of the flame, singing praise to God, and blessing the Lord. 24 And Nabuchodonosor heard them singing praises; and he wondered, and rose up in haste, and said to his nobles, Did we not cast three men bound into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said to the king, Yes, O king. (Dan 3:23-24 Brenton's Septuagint Translation)

You will note the numerous similarities with the NKJV version we read today. But I'm sure you also noted the one significant addition. It tells us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singing praises to God whilst they were in the furnace.

Now if this singing in the furnace is true it certainly makes for an interesting and intriguing addition to the story. It reminds us of Paul and Silas who also sang praises whilst they were imprisoned in the Philippian jail (Acts 16:25)

So let us speculate at how things may have played out with this addition. Perhaps the king was turning away about to leave when a sound caught his ears. What can it be?

Where is it coming from? It appears to be coming from inside the furnace. But how can such a thing be. No one could be singing inside a red hot oven. The king hurried back to look inside. As the king looks into the flames he gets quite a shock.

His obviously expected that these three men would perish very quickly. They might thrash around for a brief moment but then all would be still as the flames consumed their bodies. But that is not what is happening here. They are walking around unbound. Again it's an interesting detail. They were not huddled together, hopping about as if in pain, running around wildly but walking around. I think the detail is added to remind us that even in this extreme situation they were calm and at peace. They were not all consumed with fear.

So the first thing that shocks him is that they are not dead. The next thing to really shock him is the number of people he can see. He knows exactly how many men were thrown into the fire. Three men were thrown, or fell in. He calls out to his counsellors to verify that it was three men who had been thrown into the furnace. They confirm that he is correct.

And yet now he sees four. All four moving around unrestrained. Three of the men look like normal human beings but the fourth is different. His appearance is special. Nebuchadnezzar describes him as looking like the “**Son of God.**” What he means by this is that this fourth individual had a supernatural or superhuman appearance. So the question is, who was this fourth person?

Let us briefly consider the phrase “son or sons of God.” The phrase “sons of God” occurs ten times in the Bible. Five times in the Old Testament (Genesis 6:2, 4; Job 1:6; 2:1; 38:7) and five times in the New Testament (Matthew 5:9; Luke 20:36; Romans 8:14, 19; Galatians 3:26). The phrase has different meanings in the Old compared to the New Testament. Let's look at the Old Testament first.

The passage that provide the clearest meaning of the phrase “son of God” in the Old Testament occurs in the book of Job. Let me read from Job chapter 1 verse 6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You will note here that the sons of God presented themselves to God in the heavenly realm and that they appear to be a similar being to Satan. So clearly in the Old Testament the term “sons of God” referred to angelic/spirit beings.

What about i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time the phrase “sons of God” appears in the New Testament is in Matthew 5:9.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This verse as you are no doubt aware is the seventh beatitude in the Sermon on the Mount. The beatitudes describe the behaviour that is expected of a Christian. The final passage in the New Testament that uses the phrase “son of God” is Galatians 3:26.

For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Gal 3:26)

Again it clearly refers to Christians. So in the New Testament the term “sons of God” refers exclusively to human beings who follow Christ.

We have one further thing to consider.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fell down before Him, and with a loud voice said, “What have I to do with You,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 not torment me!” (Luke 8:28)

So was this fourth person in the furnace the Lord Jesus Christ? We know that as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He has always existed. Prior to his taking on human flesh (the incarnation) he existed in spirit form. We also know that he made several pre-incarnate appearance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period. The technical word we use to describe such appearances is a “Christophany.” This is a combination of two Greek words *Christos* which means Christ and *phainein* which means to appear. When you put them together you get Christophany or “Christ appears.” So was it the Lord Jesus Christ walking around with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fiery furnace? I am inclined to think that this fourth figure was indeed the Lord Jesus. Let me remind you of what we read in Isaiah 43:2.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flow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shall not be burned,
Nor shall the flame scorch you.**

So quite understandably the pagan king Nebuchadnezzar did not identify this figure as being Jesus Christ. He did however recognise it as being a supernatural being. So in this context he thinks he is seeing an angel, but in fact he is seeing Christ.

So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not alone in their moment of greatest need. The Lord Jesus Christ was standing alongside them. What an important lesson this teaches us. We may not always be delivered from the difficulties we face in life, but we have God's wonderful promise that we will never have to suffer alone. I shall speak more about this in my closing

Before finishing our study for today I just want to mention Daniel. As we noted last time his absence is curious and puzzling. The bible does not tell us where he was at this time. It is highly likely that he was away on government business at this time. Whatever the case his absence gives us an interesting insight into future events. God's Word tells us that one day a mighty world ruler will arise. He is referred to as the Anti-Christ and as his name suggests his systems and ideas stand opposed to God's. Just like Nebuchadnezzar he will demand that everyone bow down and offer him worship. This will all come to pass during the end time tribulation. Seven years filled with unimaginable horror. But in the same way that Daniel was absent during Nebuchadnezzar's reign of terror so believers will be absent for the tribulation. We shall be whisked away and will be with God at this time. So even in Daniel's absence from this scene we are learning an important lesson.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the impact all of this has on king Nebuchadnezzar.

24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25 “그런데 어쩌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 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우리는 왕이 용광로 안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떨어진 곳에서 잔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높은 플랫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쪽 문에서 안을 들여다 보거나 벽에 난 구멍 중 하나를 통해 들여다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는 용광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 했습니다.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항한 이 유대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가능성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New King James 성경 번역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매일 읽는 성경이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잠깐 칠십인역 Septuagint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종교 사적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주된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100 년경에 완성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널리 읽힌 성경 번역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이 신약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인용한 성경이 칠십인역이었습니다.

성경 번역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New King James 성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때로 어떤 번역본은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은 빼기도 합니다. 다니엘 3 장 24 - 25 절을 그리스어 칠십인역에 나오는 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읽어보겠습니다.

23 그러자 □□□□ 메삭과 아벳느라는 세 □□□ 불타는 용광로 한 가운데로 떨어져 불길 가운데를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주 하나님을 축복했다 24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급히 일어서 귀족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세 □□□ 묶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단 3:23-24 브렌튼의 칠십인역)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the Most High God 예수여 당신이 무슨 일이 있나까? 당신께 구하노니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8: 28)

그렇다면 용광로 안에 있는 이 네 번째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 분이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 성육신(the incarnation)을 취하기 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 여러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한 등장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의 출현 Christophany"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Christos* 와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phainein* 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Christophany 또는 "그리스도 나타나 Christ appears"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타는 용광로 안에서 거닐었을까요? 저는 이 네 번째 인물이 실제로 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2 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자날 때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자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못하리니 (이사야 43:2-3)**

이교도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가 초자연적 존재 supernatural being 임은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천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삭, 아벳느고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혼자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부터 항상 구원받지는 못할 자라도, 그 고통을 결코 혼자 겪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에 대해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다니엘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의 부재가 궁금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정부 업무로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부재는 마라에 있을 사건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젠가 강력한 세계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고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체계와 사상은 하나님의 체계와 사상과 반대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기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찬 7 년 하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공포스러운 통치 기간 동안 부재했던 것처럼 신자들도 7 년 환난 동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려져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만나 오는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다음 주에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겠습니다.

Lesson to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God is always with us

I'm sure that at some point in your life you've had to face a difficult situation. Perhaps you had to go and see the doctor knowing that their diagnosis would not be a good one. Maybe you got a phone call late at night telling you a family member was critically injured or sick. Or less dramatically you had a job interview that really stressed you out. In these kinds of situations we look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others. Simply put we look for someone to stand alongside us as support. Hopefully we all have family members or good friends who we can trust to be there when we need them.

In our story today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ad each other. They knew that whatever transpired they would not be alone. That must have been a great comfort to these men. But of course more significantly they were not alone because the Lord Jesus Christ was with them. That truly is a great comfort.

It's also a great comfort for us. As I said a moment ago we all hopefully have people who love us enough to stand with us no matter the situation. But there may be times when we genuinely are alone. When we must face a difficult challenge or unpleasant situation without anyone alongside. How terrifying that thought would be if we did not have this story (and many others) to remind us that we are never truly alone. God is standing beside us.

The story of Bethany Hamilton provides the perfect example of this. Bethany was a very promising young surfer. In 2003 aged 13 Bethany was out surfing. She paddled out farther than the other surfers that day in the hope of catching a big wave. Suddenly, and without any warning she was attacked by a 14 foot tiger shark. The shark grabbed her left arm and tore it off. Fortunately for her other surfers were on hand to rescue her and bring her to the beach. Her situation was critical. Medical experts estimate that she lost 60% of her bodies blood. As she was airlifted to hospital a paramedic whispered to her, "God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She clung to this hope through the pain of her injury and the subsequent long recovery time. She imagined as she lay in her hospital bed that her future would be very different to how she had planned. Bethany though God's amazing grace not only recovered. She went on to enjoy a successful surfing career, became a well known public speaker and had three sons. A movie called "Unstoppable" was also made about her life story. She never forgot the truth that God is always with us.

May that thought always remain with us as we handle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of life.

1.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좋지 않은 진단을 받을 줄 알면서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늦은 밤에 가족 중 한 명이 크게 다쳤다가나 아프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덜 심각한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원과 격려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옆에서 지지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해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혼자서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큰 위안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큰 위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이 어려운 도전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혼자서 아픔을 상기시켜 주는 이런 이야기(그리고 다른 많은 이야기)가 없다면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계십니다.

베서니 해밀턴 Bethany Hamilton 의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베서니는 매우 유망한 젊은 서퍼였습니다. 2003 년 베서니는 13 □ □ □ □ □ □ □ □ 그녀는 거대한 파도를 기대하며 그날 다른 서퍼들보다 더 멀리 노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녀는 14 피트 호랑이상어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 □ □ □ 의 왼팔을 물고 뜯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서퍼들이 그녀를 구출하고 해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위독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그녀가 혈액의 60%를 잃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공수될 때 구급대원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God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그녀는 부상의 고통과 그에 따른 긴 회복 기간 동안 이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녀의 미래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서니는 부상에

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서핑 경력을 쌓았고,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으며,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멈출 수 없는 Unstoppable”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진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 나갈 때 그 생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 Escape from the fire

What do you suppose went through the minds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s they were marched towards the entrance to the fiery furnace? We might imagine they were in a state of extreme paralysing terror. Perhaps, God had given them a great sense of peace about what was to happen. The bible does not tell us.

We all know that unless the Lord Jesus returns for us at the time of the rapture then we are going to die. It's not a pleasant thought but it is a reality. For those of us wh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we have nothing to fear. Death is just a doorway from this existence to the next. We close our eyes in death and open them to find ourselves in the presence of our Saviour. But for those who have rejected the free gift of salvation Jesus offers the future is not so pleasant. Many would like to believe that at death you just blink out of existence. It all goes black and then...nothing. This is not what will happen. The future for those who willingly choose to reject Christ is hell, the lake of fire.

I saw an interesting article recently on some of the myths surrounding hell. You, or people you know may have heard or worse yet accepted these myths. Let's do a little myth busting.

2 불길로부터의 □□

□□□, 메삭, 아벳-네고가 불타는 용광로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극도로 마비되는 공포 상태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평안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다지 즐거운 생각은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죽는 순간에 눈을 감지만, 다시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는 구세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공짜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고 □□□□□ □□□□□□□□□□ 모든 것이 암흑으로 바뀌고..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미래는 지옥, 불못입니다.

저는 최근 지옥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들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들은 적이 있거나 심지어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짚어 보겠습니다.

Myth 1: Hell is the devil's headquarters

Wrong. The devil is not in hell now. Hell, or the lake of fire will receive its first occupants at the end of our Lord Jesus' millennial reign (Revelation 20:7-10). Hell is where Satan will end up but he's not there now.

잘못된 믿음 1: 지옥은 악마의 본부다

틀렸습니다. 악마는 현재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 또는 불못은 우리 주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끝날 때 첫 번째로 악마가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7-10). 지옥은 사탄이 궁극적으로 갈 곳이지만 아직은 그곳에 없습니다.

Myth 2: Hell is reserved solely for the worst of evildoers

Wrong. While there are likely degrees of eternal punishment (Luke 12:47-49), **all** who refuse God's mercy must endure His wrath (John 3:18). There is heaven, and there is hell; there is no third

잘못된 믿음 5: 지옥은 특정한 충성심이나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겁주기 전술일 뿐이다

틀렸습니다. 지옥은 실재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28).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을까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더 잘 알까요?

지옥은 비참함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이 결코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요한계시록 14:11).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에스겔 18:32). 그분은 하나님 대신 지옥을 선택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6).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갚아졌다고 믿는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옥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장소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 □□□□ □□□ □□□□□□□□.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덕분에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영원한 불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전합시다.